아주대학교병원소식지

발행인:李 成 洛 편집인:徐 廷 鎬 편집:아주대학교병원 홍보과 ☎219-5368

발행인의 편지

시간의 흐름이 화살촉 같다는 교훈이 새삼 피부에 와 닿는 요즈음입니다. 추진본부 대부분의 사무실이 병원으로 어느새 이전했고 이제 전산개발부, 시설과 등 나머지 부서도 조만간에 병원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4월25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로부터 진료를 해도 좋다는 의료기관개설 허가가 나왔으며 병원공사의 마무리로서 조경공사도 한창입니다. 이제 우리가 독자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이 전산개발부 이전과 때를 맞추어 병원건물 전체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임상 각 부서는 물론 행정 각 부서도 개원작업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하루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듯 6월1일 진료시작을 앞두고 병원 각 부서 사무실이 개원작업을 마무리 하여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고생해 온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기쁜 생각도 듭니다만, 한편으론 혹시나 우리가 쫓기는 듯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 역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수동적인 생각보다는 진료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제한된 시간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병원이 환자를 위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의료원 역시 의과대학과 병원, 의학연구소라는 조직을 통해 최상의 교육, 최적의 진료, 최고의 연구를 주체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피동적인 자세로 이러한 것들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 모두 능동적인 자세로 효원의 도시 수원이라는 땅에서 일구고자 하는 우리의 뜻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역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견고한 의지를 발휘하는 자에게 더욱 좋은 결과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굳은 의지는 의료원과 교직원 모두의 희망스러운 내일을 분명히 보장할 것입니다.

李 成 洛

5월호

-의료원 인사등 소식
-아주대병원 체험
-예비교육을 마치면서
-사진클럽 첫 출사
-병원장 칼럼

초대 의무부총장 李成洛학장 병원장엔 李鎬榮 교수 임명

- 아주대학교 의료원 인사

아주대학교는 지난 2월25일 의과대학, 아주대학교병원, 의학연구소로 구성된 의료원 체제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 아주대학교 초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에 李成洛 의과대학장을 4월1일자로 소급해서 임명하고 아주대학교병원 초대 병원장에는 李鎬榮교수(정신과학)를, 의료원 초대 기획조정실장에는 徐廷鎬교수(진단방사선과학)를, 병원 진료부원장에는 鄭浩根교수(산업의학과)를 4월20일자로 정식 발령했다.

초대 李의무부총장은 독일 뮌헨대학을 졸업, 69년 同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전문의 과정 및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李의무부총장은 75년에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에 임명 85년부터 87년말까지 同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90년3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장에 임명되었다.

李병원장은 5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의학대학원을 수료,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웨스턴리서브대 정신과학 수련의를 거쳐 74년부터 84년까지 미국 뉴져지주 버클리 하이츠 존 러널즈병원 정신과장을 역임한 후 귀국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주임교수를 역임하고 93년 9월에 아주대학교병원장으로 부임했었다.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추진본부 해체

-제78차 운영위원회에서

金孝圭총장이 5월2일 개최된 제78차 운영위원회에서 병원건립 추진본부를 해체하고 1994년 5월1일자로 아주대학교 의료원 체제로 공식출범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병원건립 추진본부 체제에서 운영되던 운영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 의료원 운영위원회와 의료원 건축위원회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지만, 각 부서의 기능과 임무, 성격 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김효규 총장은 그동안 병원건립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6월1일 진료개시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하여 92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병원건립 추진본부는 이로써 만 25개월만에 의료원 체제로 전환되었다.

의료원 제 규칙 공포

-취업규칙등 14건

의료원 조직의 체계적인 정립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의료원 제 규칙 14건이 19일자로 공포됐다. 이번에 일차적으로 공포된 규칙은 의료원 각 부서의 직무를 규정한 의료원 직무 분장규칙, 의료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 교직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당 지급규칙, 기타 의료원 제 위원회 운영규칙, 의료원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의료원 규정류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의료원 문서처리규칙, 의료원 전공의 수련규칙, 의과대학 연구강사 규칙, 연월차 유급휴가 시행규칙, 임상교원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지급내규, 의료원 자체감사규칙, 의과대학 특별임명교원에 관한 규칙, 당직 근무규칙등 14건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득

- 권선구 보건소 4월25일

아주대학교병원이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4월25일자로 취득했다. 개설허가가 나옴에 따라 본원은 진료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아주대학교병원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신청, 응급의료센타 지정신청 등 병원 운

영에 있어서 중요한 인허가 신청시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신규 간호사 예비교육 수료식

신규간호사 예비교육 수료식이 지난 4월8일 병원로비 2층에서 의료지원부 주관으로 있었다. 의무부총장,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처장, 의료지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료식에서 李成洛의무부총장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무사히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李鎬榮 병원장은 수료생들에게 환자의 고통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지난 2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총 6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 본원의 신규 간호사 174명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성공리에 수료의 기쁨을 나눴는데 영예의 최우수 총장상에는 필기시험 성적 1등을 차지한 손연정 간호사가 차지했으며, 의과대학장상에는 김민희, 교육기간 중 협동, 우정, 태도, 친절 등에서 모범을 보인 교육생에게 주어지는 병원장상에는 강경희, 기획조정실장상에는 강병옥, 실습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행정처장상에는 윤선희, 의료지원부장상에는 남수민 간호사가 각각 차지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길경수 간호사와 손연정 간호사가 예비교육을 마치면서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등에 관해서 의견을 발표했다(8~9면 참조). 수료식 후에 진행된 다과회에서는 그 동안 강의와 교육진행을 위해 애쓴 의료지원부 간호사들과 수료생들 사이에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있었다.

친절교육 전담강사 교육실시

-직원교육은 5월3일~27일 까지

의료원 교직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담당할 친절교육 전담강사에 대한 위탁교육이 지난 4월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의학관 제 5 강의실에서 있었다. 교수직 6명, 간호직 8명, 일반직 6명등 총 20명의 강사위탁 교육생에게 실시된 이번 교육은 친절한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병원의 운영방침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번째 조치이다. 서비스문화연구소라는 전문단체의 지도아래 시행된 이번 교육의 내용은 크게 행동교육 훈련과 체험적 학습, 선진국의 병원 친절사례에 대한 관람이 있었다. 특히 행동교육 훈련은 비디오로 촬영한 자신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원내에서의 각 상황에 따른 인사예절, 대화예절, 표정관리, 바람직한 용모관리 및 복장모습, 올바른 자세 및 동작, 환자의 심리상태등 직접 표출되는 행동에 관해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강사위탁 교육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직접 비디오로 촬영하여 교육에 참여한 모든 교육생이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이미지 변신이란 프로그램이 있었고 개인별 강의방법을 점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Feed Back식의 토론도 있었다.

병원측은 이들 위탁교육생들로 하여금 각각의 교육항목을 지정하여 교직원에게 항목별로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5월3일부터 27일까지 교원, 직원, 전공의, 간호사 등 직군별로 근한달간에 걸쳐 친절교육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강사위탁 교육생은 오기석, 전미선, 이은소, 이영문, 정윤석, 임신영 교수등 교원 6명과 행정. 의료지원부서의 이효철, 송기정, 김영숙, 이 은, 이영희, 백설경 씨, 간호직에서는 조유숙, 김미아, 장봉희, 양정숙, 박연옥, 정은경, 이은경, 김지양 간호사이다.

병원내 전산망 구축작업 진행중

- 5월24일까지 완료예정

아주대학교병원의 중추신경 역할을 할 전산망의 구축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전산교육에 필요한 Work Station은 5월9일 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고, 이후 각 부서별로도 필요한 Work Station이 설치되면서 25일부터는

실제상황과 다름없는 예행연습을 하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아주대학교병원의 Main Sever는 Unix 6000 시리즈의 85 기종과 65 기종으로서 5.2G Byte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는 85 기종은 2대가 도입되었고, 3.9G Byte의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는 65 기종은 모두 16대가 도입되었다. 이들 두 기종은 167대의 Work Station과 서로 연결되어 아주대학교병원 전산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게 된다. 전산망 구축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ID카드만을 가지고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과 각종 검사 등을 모두 전산처리함으로써 빠른 시간내에 진료를 끝낼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의 병원을 만나게 된다.

추진본부 사무실 이전

- 5월9일까지 완료

병원건립 추진본부의 사무실 이전이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다. 행정처, 기획과, 홍보과, 의무기록과, 영양과 등이 지난 4월18일에 병원으로 이전했으며,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처장, 진료부원장 사무실도 3층 행정부로 5월3일까지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주대학교병원 전산의 Main Sever, UPS, Work Station 등의 주요장비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전산개발부는 5월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이전 작업을 마쳤다. 이로서 추진본부의 시설과내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병원으로의 사무실 이전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시설과내 일부 부서도 5월9일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건축기획본부에서는 병원 및 사무실 내부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임상 각과 안내서 표지디자인 의뢰

-다양한 양식의 5종 선뵈

임상각과의 안내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지원부와 홍보과가 의뢰한 안내서 표지 디자인 결과물이 디자인포커스사에서 나왔다. 원내 유인물의 표지를 의료원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및 문자로 디자인함으로써 병원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의뢰된 이번 표지 디자인의 결과물은 모두 5종으로서 크기는 각각 가로 18.5 세로 25.0, 가로 20.0 세로 13.8, 가로 9.8 세로 22.8, 가로 13.9 세로 21.5, 가로 17.0 세로 10.5 센티미터이다. 임상각과를 비롯한 필요부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의료지원부 김효심과장이나 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병원 교직원 식당운영 시작

의료원 교직원을 위한 식당운영이 5월2일부터 시작됐다. 급식전문업체인 아라코가 운영을 하게되는 병원 교직원식당은 의료원 교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향상 차원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의료원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중식에 한해서 문을 연 교직원 식당의 중식비는 1천4백원이며, 이용방법은 식당내 총무과 직원에게 식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식당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급식의 종류와 질에 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게 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6월부터는 식대지불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美 국립보건원 임종재 박사 특별강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난청 및 언어장애 연구소(NIDCD) 책임연구자인 임종재 박사의 특별강의가 지난 4월13일 의학관 제1강의실에서 있었다. 이비인후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에는 李成洛 의무부총장 등 50여명의 교원이 참석했는데 임박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보건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예산도 삭감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연구원을 뽑는 것보다는 미국 자체의 연구원을, 특히 여자연구원과

흑인연구원을 우선적으로 뽑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NIH 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하기는 점점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박사가 몸 담고 있는 NIH는 단일 연구소로서 짧은 기간내에 가장 많은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으로 임박사는 NIDCD의 책임연구자로 근무하고 있다.

김문현교수 도서기증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산부인과학 교실의 김문현교수가 아주대학교의료원 의학도서실에 평소 소장하고 있던 산부인과 관련 학술잡지 186권(합본된 양식)을 지난 29일 기증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의학연구에 긴요하게 참고될 이번 기증도서는 다음과 같다.

Fertility and Sterility V.21~58(1970~1992),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of Metabolism V.31~75(1970~1990), Obstetrics and Gynecology V.35~80(1970~1992),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V.109~165(1971~1991)

직원 명찰패용

-4월25일부터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추진본부 과장회의에서는 급격한 직원증가로 인해서 서로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직원들 사이의 서먹함을 없애고 인사를 나눌 수 있게끔 직원 각자의 소속과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패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원 신분증이 나오기 전까지 패용하게 될 현재의 명찰은 임시적이기는 하나 서로간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정기 교양교육 실시

추진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4월 정기 교양교육이 지난 4월 29일(금)에 본교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열렸다.

주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7가지 습관"이었으며, 강사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최진호 교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에는 인사과의 주관으로 4월 신규 입사자들과의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알 린

등산반원 모집

당신은 주말에 무엇을 하십니까? 대자연과 함께 호흡할 등산반원을 모집합니다. 당신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기획과 박정수(5352)

테니스반원 모집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계십니까? 선택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고래힌줄 같은 라켓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락을 바랍니다.

관리과 김원배(5376)

** 소식지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홍보과**에 연락을 주십시오. ***(219-5368~9)***

체험 - 아주대학교병원

합격은 수원인구 아는 것과 상관없어!

"수험번호 : 신사회-8, 이 름 : 이 상 진"

바깥 날씨는 더할 수 없이 춥다. 수원은 왜 이리 바람도 많은지, 무스를 바른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만다.

"젠장, 이렇게 추운날 면접은 또 뭐람, 아휴 이 황토 먼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면접이 있다는 의과대학 건물까지 코트자락을 세우고,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바람을 이기며 걸었다. 원서를 제출하던 날은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의료사회복지란 뭔가?"

"지역사회의 욕구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어 보지만 왠지 오금이 저리는 듯한 면접이다. 면접에서는 면접관과의 시선 마주침(Eye-Contact)이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데, 고개만 자꾸 떨어뜨릴 뿐이다. 벌써 몇번째 치른 입사 면접이건만 면접때마다 긴장되는 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한 섭리인가? 대답은 생각나지 않고 화장실 가고픈 마음 뿐이다.

"수원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순간 대답하려고 대뇌로 혈액을 펌프질 해보지만 긴장한 탓인지 수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옆에 있는 경쟁자가 먼저 대답한다.

"10만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진군 자네는?"

벌써 두 손을 얹어 놓은 무릎위에는 땀이 흥건히 흐른다.어떻게든 대답을 해야한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지? 입과 혀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 저도 10만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13만 정도입니다."

히히, 즉석에서 지어낸 대답치고는 잘한 것이겠지? 수원의 지역적 특성상 서울이나 주변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까지 언급한 것은 참신한 대답일꺼야. 면접에서 제대로 발표도 못한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면접장을 나오면서도 나는 수원시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있다.

"아저씨, 수원시 인구가 얼마나 되요?"

"글쎄요, 한 6~70 만 정도 될걸요."

이런 낭패를 봤나!

70만에 가까운 인구를 10만 어쩌구 유동인구 저쩌구 했으니. 내가 다니던 대학교 학생만 해도 2만명을 헤아릴 정도였는데, 수원시 인구가 겨우 10만명 밖에 안될까? 왜 그리 응용력이 짧았던지 후회해도 쓴 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10만명에 유동인구가 3만명이라고?

텅빈 수원역 광장의 찬바람이 낯 뜨거운 내 얼굴을 따가울 정도로 다정히 쓰다듬는다.

수원시 인구에 대한 웃지 못할 기억을 뒤로 하고 드디어 첫 출근을 한다. 병원장님의 질문하신 의도를 여전히 알지못한 채로 말이다.

"역시 합격은 인구수를 아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이제야 알 수 있는 병원장님 질문

수원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택시를 자주 타고 다녔는데, 탈 때마다 운전기사들이 아주대학교병원의 개원시기를 묻고 큰 기대를 표현하곤 했다. 또 내가 세들어 사는 주인집 할머니도 그동안 수원에 크고 좋은 병원이 하나 생기기를 바라고 계셨다고 한다. 집 가까이 좀 큰 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제대로 치료를 받은 것 같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아주대학교병원이 생기면 훨씬 나아질거라고 기대하신다. 굳이 사회사업과에서 실시한 수원지역 의료이용욕구 조사의 분석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수원시민 대다수가 아주대학교병원의 개원을 기다리고 있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내고장

에서 바로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원시민들의 일차적인 기대가 될 것이다. 조금만 중한 병이다 싶으면 서울로 가서 장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아야 했고, 또한 입원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또한 큰 병원이 생겼으니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가질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병원이니 다른병원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해 주기도 기대할 것이다.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의료진이 친절히 대답해 주기를 바랄 것이고, 환자 개개인에게 좀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바라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중에는 너무 지나친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종합병원에 대한 나쁜 선입견으로 본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설립되면 지역사회내에서 수요의 필요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공급만이 병원 본연의 의무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이제는 병원이 스스로 지역사회내에서 여러가지 해야할 바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즉 병원은 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전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는 병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 사회자원으로 병원의 기능수행을 돕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병원이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내의 인간봉사기관(Human Service Organization)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병원이 인간봉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이 병원의 운영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이 병원의 운영에 도움을 주며, 또한 병원이 여러가지 형태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참여한다면, 이는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이룬, 성공한 병원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본원에서는 벌써부터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원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만아캠프를 실시하여 수원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수원지역의 의료이용행태와 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원지역 의료이용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중에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사회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병원상을 만드는 것들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객관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자편의 향상위원회의 활동도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준비중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본원은 수원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진병원이 될 것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직원이 되어 두달 정도 일하고서야 병원장님께서 면접장에서 수원시 인구수를 물어 보신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지역사회 중심의 병원이라는 설립이념도 이해를 하게 되니 나도 참 둔한 사람인가 싶다.

사회사업과 이상진

이 글은 사회사업과 이상진씨가 병원에 들어오기전 면접시험 때, 겪어야 했던 당혹감(?)과 병원직원으로 2개월이 지나면서 느꼈던 소감을 적어 보낸 것입니다. 홍보과에서는 교직원 여러분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얘기, 주변얘기, 기타 어떤 글도 소중히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2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6주간의 간호사 예비교육을 마친 우리병원의 신규 간호사들이 교육을 끝내면서 그 동안 느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풋풋하면서도 싱싱한 글 2편을 싣는다.

친절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한지도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차츰 정리되어 가는 병원건물을 보며 나의 공간임을 느끼고 설레이는 가슴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강의, 기관실습, Lab, 전산실습 등 알차게 짜여진 교육프로그램에 열중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조차도 모르게 6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빽빽한 강의시간이었지만 Lab실습을 통해 낯선 얼굴들이 친근해졌고 함께 손발 맞추어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동료들이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전산실습을 통해 궁금했던 병원의 전산화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이 깊었던 것은 부총장님, 병원장님, 간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의료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환자중심의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여 깨끗한 병원, 친절한 병원, 간호전문화를 창출하고 환자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환자,직원,방문객들에게 항상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료지원부의 목적. 그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각오를 한번 더 다짐시키게 했습니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 자신이 설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요즘 현대 간호대상자에 대한 개념은 Patient, 즉 환자의 개념에서 Client란 고객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인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단지 그 질병만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고 단지 의사나 간호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자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접받기를 바라고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서어비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강조되어지는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간호사로서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환자를 위하는 환자중심의 병원이 있고, 그 속에 친절한 간호사가 존재할 때 올바른 간호인 전인간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 어느 소식지에서 우연히 읽게 된 일본 의료원의 현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병원직원들의 인식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환자를 가족같이」「환자를 내몸같이」란 구호만 외치는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검사전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검사중에는 「미안하다」「힘내라」하는 다정하고 친절한 말을 반복사용하여 환자를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후 주사를 놓기도 한다는데...

검사전후 설명은 고사하고 이 주사가 무엇에 맞는거냐고 물으면 「아프니까 맞죠!」 퉁명스럽게 말 한마디 던지고는 나가버리는 우리 기존 간호사들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처음 개원하는 병원에서의 친절교육은 더 없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기관실습으로 견학을 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신장이식병동에 배치를 받았고 Acting간호사와 행동을 같이해야 했는데 5日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많이 배우겠다는 것은 욕심이었지만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다름아닌 친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동이 다른 병동보다 좀 안정되어서인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로 시작되는 밝은 웃음띤 아침인사부터 검사에 대한 설명은 물론 여러번의 질문에도 친절히 답변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나가 쉽게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에서부터 자신의 행동마다 친절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제2의 습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진실로 환자를 위한 정성이 넘치는 친절한 간호사로서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화사한 봄 햇살처럼 희망있는 약손이 되어 아주대학교병원에 꼭 필요한 존재로, 환자들에게는 꼭 있어야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자리를 다져갈 것입니다.

간호사 길경수

하나의 모습만들기와 한가지 목소리내기

계절이 완연한 봄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덧 6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끝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꽉 찬 일과의 생활로부터 해방이라는 기쁨에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 아쉬움과 섭섭함,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불안도 함께 느껴집니다.

아주대학교의 교정을 걷던 첫날, 학교를 다닐 때와는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나름대로 자신에게 부가시킨 책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전산실습을 하던 첫날, 그야말로 흥분과 설레임 그 자체로 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때 병동실습을 나가보면, 환자의 곁에서 그들을 열심히 간호하는 간호사의 모습보다 Chart기록에 너무나 바빠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었고, 더우기 Charge Nurse는 여러개의 Slip을 빨리 써서 처리해야 하는 속기사처럼 느껴져, 빠른 시일내에 병원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간호사가 본연의 임무인 환자를 간호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랬던 전산화를 배우기 위해 모니터 앞에 앉고보니 '과연 내가 저녀석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컴퓨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선생님의 강의에 열중했습니다. 비록 모든 병실의 환자는 '김소라'라는 환자 한 명만이 입력되어 실감이 나지는 않았지만, 연습과정에서 키보드를 잘못 눌러 실수했을 때의 우리들의 웃음은 실습 마지막 날에 가서는 실제 병원 상황하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와 관련된 전산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한 실습이었습니다.

Lab실습 때는 미완성에서 차츰 제 모습을 드러내는 병원건물을 보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선생님들께서 한결같이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던 무균의 기술(Aseptic teahnique)/손세척(Hand-washing)/투약시 5가지 원칙 등을 역사적(?) 직업적 사명의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귀기울이며, 강의에서 배운 간호기술을 선생님들 앞에서 시범보이면서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하여 순간 순간 긴장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재미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이 3주째로 접어드니,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기만하던 동료들의 모습도 친근해지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각 지방의 사투리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원의 여러 윗 분들과의 상견례로 시작했던 3주간의 강의는 병원내 여러부서와 각 진료부서 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각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 이해가 이루어져, 다시 한번 Team-work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와 관련된 강의에서는 환자중심의 간호와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간호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강의중에 재미있는 부분에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던 웃음들, 오후 강의에선 식후 탓인지 졸린 눈을 비비며 유난히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느라 애썼던 기억들…

이렇듯 길지않은 6주간의 기간을 지내고 보니, 학교의 교정이나 병원건물, 여러 사람들과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강의와 실습의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알찬 시간들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서로 얼굴모습이나 개성 등은 저마다 다르지만, "아주인"이라는 한식구가 되기위해 모였고, 이제부터는 하나의 모습만들기와 한 가지 목소리내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처음엔 실내에서 덧버선을 신기가 쑥스러웠지만, 청결하고 깨끗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환한 미소로서 친절한 병원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간호사로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신규 간호사들을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신 부총장님, 병원장님, 간호부장님과 들고 다니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알찬내용의 교재를 만드시느라 애쓰시고 쉬는 시간엔 항상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겠지만, 6주간의 만남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한 것이 시작의 반이었다면 나머지 반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하나된 모습으로 새로운 의료문화 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조금씩 채워나가겠습니다.

간호사 손연정

이런모임 저런만남

Photo Club

첫번째 촬영을 다녀와서

봄이 오면 어둡고 두터운 옷을 벗어 버리는 것만으로도 한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봄은 나비를 앞세우고 다가오고 진달래, 개나리에 이어 벚꽃이 피더니 이제는 등나무 꽃향기가 코끝에 진한 내음으로 스며든다. 그 동안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지성이 무디어지고 감성이 둔해짐은 어쩔수 없었지만 한편으론 주변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이 자신의 감성과 문화적 욕구를 고의로 내버려둔 것은 아닐까 반성해 본다. 그러나 이제 차일 피일 미루어 왔던 취미생활을 Photo Club의 탄생과 더불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무기력했던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한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첫째날은 마침 일요일이기도 했고 Photo Club이 처음으로 출사(出寫)를 가는 날이다. 출발 하루전 안사람과 아이들을 모두 외가집에 보내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카메라 가방을 챙겼다. 나 자신만을 위한 여가시간을 갖는게 얼마만인가! 제발 날씨가 좋아야 할텐데... 뉴스시간이 끝나고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였다. '흐리거나 곳에 따라 비' 하필 Photo Club 첫번째 출사부터 펑크가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며 잠을 청했다. 1994. 5. 1. 일요일 아침. 우선 날씨가 궁금해서 일어나자 마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니 어째 심상치가 않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청바지에 티셔츠을 걸쳐입고 집을 나섰다. 의학관 앞에 도착하니 잠시후 회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간단한 인원파악이 있은후 목적지인 안성의 청학대 미술관을 향해 출발. 고속도로는 시원하게 틔여 있어 예정된 시간에 안성에 도착했다. 금광 저수지를 끼고 꼬불꼬불한 길을 몇분동안 달리니 왼편쪽에 자그마한 미술관이 시야에 들어온다. 우려와는 달리 날씨는 화창하게 개었고 사진을 찍기에는 최적의 조건인듯 싶다. 사진에 관해서는 초보인 여직원들은 홍보과 이규성씨의 간단한 이론강의 후 모두가 촬영에 열심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의료장비기획부에 근무하는 이규백씨의 10개월된 공주님이다. 무척이나 사랑스런운듯 회원들 모두가 봄볕만큼이나 따스하고 해맑은 아이의 모습에 이끌려 카메라 포커스를 열심이 맞춘다. 우리 아들놈도 데리고 왔으면 무척이나 좋아했을 텐데. 이럴때 자식을 둔 아버지 티가 날 수 밖에 없는가 보다. 사물을 영상에 담는다는 작업은 단순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사물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야 하며 예술적 감각을 필요로 한다. 아직은 모두가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점차 많은 경험을 통해 사진예술의 묘미를 알게되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며 사진에 관심을 가진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새삼 부탁드립니다.

아들놈도 데리고 왔으면 무척이나 좋아했을 텐데

원무과 송기정

Brighten Your Corner

Have you noticed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people you meet? Some are as sunshiny as a handful of forget-me-nots. Others come on like frozen mackerel. A cheery, comforting nurse can help make a hospital stay bearable. An upbeat secretary makes visitors glad they came to see you. Every corner of the world has its clouds, gripes, complainers, and pains in the neck-because many people have yet to learn that honey works better than vinegar. You're in control of your small corner of the world. Brighten it... You can.

- from United Technologies Co. Ad -

당신의 자리를 환히 밝히세요

당신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저마다 매우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다발의 물망초와 같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꽝꽝 언 고등어 같은 모양이고요.
명랑하고 친절한 간호사는
입원생활을
견디기 쉽게 해줍니다.
상냥한 비서는
방문객에게,
당신을 만나러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계의 어떤 곳에도
어두운 구름은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지겨운 일이 있지요.
그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꿀이 식초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신은 세계 속에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곳을 환히 밝히세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장 칼럼

돌봐주는 눈초리

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교통에서 언어성(言語性)인 것보다 비언어성(非言語性)인 표현이 멧세지의 신빙도나 인간관계의 정서적 분위기를 더 크게 좌우한다. 병원직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지켜야 할 병원규칙을 타이르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말을 어떤 표정이나 몸짓으로 전달 하느냐에 따라 듣는 이의 순응도가 달라진다. 단속이나 질책을 하는 눈초리로 말하는 것과 협조를 구하고 가르쳐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같은 비언어성인 행동에는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경우 찾아오는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에 불안해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준다는 기본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직원들이 베푸는 훈련된(?) 친절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돕겠다는 의지가 잘 표현되려면 우선 눈초리부터 달라져야 한다. 내가 최대의 관심을 쏟고 있고 모든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증거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의 요구를 끝까지 듣겠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누가 병원복도에서 검사실이 어디냐고 묻는 경우 상대방의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음의 내용을 충분히 들어주고 정확하게 대답해주면 우선 묻는 이는 자기가 소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일에 쫓기고 있어 매사가 귀찮은 시간에 누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구할 때에도 일단 하는일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어 상대방을 돌봐주는 시선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응해주는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시선을 마주치면서 초면에 있을 수 있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라든가 또는 상대방을 모르는데서 오는 불안을 제거시키는 습관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거리나 식당같은 곳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칠 때 상대방의 신분을 평가라도 하듯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또는 멸시하는 것같이 노려보는 버릇이 있다. 시선으로 남에게 친밀감을 주게하지 않고 오히려 적개심에 찬 눈총으로 쏘아보는 것이다.

이같은 차가운 시선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있어서는 안될 절대적 금기이다.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병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지 몹시 불안해하고 속으로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신을 돌봐주고 안심시켜줄 대상을 찾는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그가 간호사이건 의사이건 검사실에서 채혈하는 기사이건 아껴주는 사랑의 눈총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의 눈속에 숨은 공포와 불안을 제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짧은 시간동안 신뢰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이 길 밖에 없다. 즉 도와주겠다는 의지와 안심시켜 주려는 멧세지가 담긴 눈초리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친절의 눈초리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날 때 이같은 정어린 시선이 오고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李鎬榮